

구례 예술인들 '운조루 문화뒤주' 행사 마련

오는 6일 운조루 나눔 정신·의미 되새기는 프로그램 선택 오미마을 사람들의 전래이야기 재구성 '오미별곡' 발표도

구례의 고백 운조루(雲鳥樓·중요민속자료 8호)에서 오는 6일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문화 행사를 한다.

'운조루 문화뒤주 - 풍류 풍수의 명당에서,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운조루를 세운 류이주 선생의 이웃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운조루 누마루와 안채에서 9대 종부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곡을 발표하고 고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을 문화지도 전시, 들치회와 전통음식 나눔 등 운조루의 역사부터 현대적 의미를 두루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구례의 작곡가 옥수수(김주혜)가 종부의 시각으로 운조루를 노래한 '귀거래해'와 오미마을 사람들의 전래이야기를 재구성한 '오미별곡'을 발표한다.

구례출판문화진흥재단인 이철호 명인의 강연과 거문고 산조 연주회도 이어진다.

한지 인형 작가 소빈은 종부의 꿈을 표현한 한지인형 전시회를 연다.

종부 이길순(84) 할머니도 모내기 등 고된 농사일을 하고 나눠 먹는 씨래시집 음식 나눔 행사를 하며 운조루의 정신을 알린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 고택인 운조루는 1776년(영조 51년) 낙안군수였던 류이주 선생이 지은 가옥이다.

류 선생은 뒤주로 누구나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글씨를 새겨 마을에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와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밥 짓는 연기가 멀리 퍼지지 않도록 낮게 만든 굴뚝 역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한 운조루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남도 문예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지리산씨협



전통방식 장 담그기 구례 운조루 사랑채에서 9대 종부 이길순(오른쪽) 할머니와 며느리가 전통방식으로 지난 동짓달 커다란 독(항아리)에 묵혀 두었던 메주를 정성스럽게 꺼내고 있다. 꺼낸 메주는 된장을 담그고 장은 커다란 가마솥에 다려 조선장으로 만든다. (구례군 제공)

동조합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 구례군이 후원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서편제 보성판소리축제' 19~21일 연다 다향체육관 등서...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도

보성군은 오는 19~21일 보성 다향체육관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회 서편제보성판소리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됐다.

첫날 19일에는 판소리 명창 박유전(1835~1906) 선생을 비롯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 성우향, 성장순 선생을 기리는 합동 추모공연이 열린다.

정응민 생가에서는 판소리 다섯마당 완창 공연이 펼쳐진다.

20일에는 기념식과 KBS 특집 축하 공연을 비롯한 공연이 펼쳐지며, 전국

판소리·고수경연대회 예선이 열린다.

21일에는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본선이 펼쳐지며, 줄타기 공연, 타악 공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의 명창부 대상은 대통령상과 시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전국 판소리·고수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가능하며, 서편제 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061-852-2621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축제 안내는 보성군 축제포털(<http://festival.boseong.go.kr/so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 유기농 햅쌀 '백세미' 명절 상품 인기

곡성군은 석곡농협과 협력해 생산한 유기농 백세미 햅쌀이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었다고 1일 밝혔다.

곡성군에서 생산한 2017년산 백세미는 지난 8월 말 매진되는 등 2년 연속 완판을 기록했다.

올해 추석 선물용 햅쌀은 지난달 15일 첫 수확을 시작해 건조·숙성과정을 거쳐 판매했다.

백세미를 시식해 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선물세트 주문량이 급증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1만2000여 개(1kg)가 팔렸으나, 올해 추석에는 1만6천여 개가 팔려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지난 21~23일까지 개최된 석곡코스모스 음악회를 찾은 관광객들이 너도나도 구입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곡성군은 올해부터는 백세미를 재료로 가마솥에 수제료 생산한 누룬지(샤진)를 추석에 앞두고 출시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백세미 누룬지 판매가는 한 봉지(400g)에 8500원으로 현재는 석곡농협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백세미를 판매하는 농협하나로클럽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구례·마산 정수장 통합 이전사업 추진

구례군은 오는 2021년까지 총 2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례·마산 정수장 통합 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모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2019년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선정되며 안정적인 수도물 생산과 공급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준공한지 35년 이상된 구례·마산 정수장을 현재 건설중인 섬진강변 구례취수장 인근으로 위치를 옮겨 통합 증설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그동안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

해 군수를 비롯한 산하공무원이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은 상수도의 안정적인 보급과 확대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문척·간전·도지면 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먹는 물은 군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시설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상수도 보급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흥 마늘심기 한창 고흥군 농민들이 마늘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리적표시제 제 99호로 등록돼 있는 고흥마늘은 재배면적 약 1274ha, 생산량 16만905t으로 지역대표 농산물 중 하나이다. (고흥군 제공)

"재활용 석탄재, 매립토로 사용해선 안돼"

고흥군, 농업법인 2곳에 공사중지 명령... "상수원 오염 가능성"

재활용 석탄재를 매립토로 사용하려는 업체에 대해 고흥군이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모 농업법인 2곳이 남양면의 한 마을 인근에 농산물 가공제조 시설과 소매점을 신축하면서 재활용 석탄재를 매립토로 쓰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하

고 있다. 이들 법인은 6821㎡ 규모의 농산물 가공공장과 6420㎡ 규모의 소매점을 짓기 위해 지난달 8일 고흥군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

건설 신축에 앞서 화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재활용 석탄재를 흙과 섞어 매립토로 쓴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재활용 석탄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석탄재 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업체 측이 요구해 마련한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공사도 중단됐다. 고흥군은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업체 측에 작업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20m 떨어진 곳에 상수원이 있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염방지대책과 환경영향평가도 받도록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석탄재는 법적으로 토

목공사나 도로의 보조골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근처에 상수원이 있어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며 "환경영향 평가 등을 보완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개발 인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데 회사로서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며 "석탄재는 정수 기능도 있고 퇴비에도 쓸 수 있어 환경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데 주민들이 너무 오해하고 계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